

## 에이즈에 관해 알아야 할 몇가지 것들

《에이즈 X-파일》 펴낸 안종주씨

안종주(40, 한겨레신문 생활과학부 차장)씨가 펴낸 《에이즈 X-파일》(학민사)은 국내 최초의 일반인을 위한 에이즈 교양서다. 에이즈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계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천연두·페스트 같은 역사가 오래된 전염병과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 또는 광우병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안종주씨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보건 전문기자로 이 책에는 그의 해박한 지식이 녹아 있다. 또한 10년간의 취재경험과 수집자료가 바탕이 되었다. 신문·잡지 기사 외에도 관련기관이 펴낸 자료,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뉴 사이언티스트》 같은 외국 과학전문잡지의 도움을 받았다.

“괴이한 성병”이라는 것이 안종주씨가 말하는 에이즈의 정의다. 따라서 “성적 문란의 사회분위기가 변하고, 개인의 자제력이 발휘되면 에이즈는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에이즈는 한때 ‘집단패닉현상’을 야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에이즈에 대한 무지와 언론의 과장보도가 한몫을 했다. 감염자와 환자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 바이러스나 세균, 인체면역 같은 보건지식에 대한 무지가 빚은 결과다.

이는 비단 에이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조개, 생선 등을 날것으로 먹으면 생길 수도 있는 비브리오패혈증의 경우도 그렇다.

“건강한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간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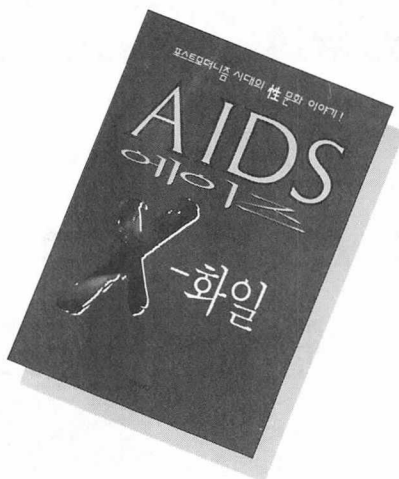
주로 성접촉에 의해 바이러스가 옮겨진다는 점 말고도 긴 잠복기를 갖는 것이 에이즈의 특징이다. 다른 전염성 질환이 빠른 병변을 보이는 데 비해, 에이즈는 감염된 뒤 5년 이내에 환자가 되는 비율은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바이러스가 미물이기에는 해도 지혜가 있는 생명체”라고 안종주씨는 말한다. 잠복기가 길어야 숙주에서 에이즈바이러스의 생존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인간의 전염병 정복사가 말해주듯 지난한 일이라는 하겠지만, 에이즈도 천연두 신세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레도 방심은 금물.

오늘도 새로운 변종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가 활발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에이즈 방역대책은 기본적인 검사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인 교육과 계몽이 이뤄져야 합니다.” 에이즈는 잠재성이 가장 큰 무기라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운다.

— 최성일 기자



## 상호교감으로서의 책읽기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될까?》 펴낸 kwak정란씨

부모들이 아이들 책을 고르는데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원칙을 장르별·연령별로 따로 소개해 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난 후의 작업이죠.”

독후감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kwak정란씨는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방법을 들려준다. 동화작가에게 자신이 느낀 점을 편지로 써 보낸다거나 독서감상화를 그리는 것 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하면 책의 내용이 풍부해질 뿐 아니라 부모와 어린이간의 상호 교감도 얻을 수 있다.

독서지도와 상관없이 보이는 책장 정리, 책을 읽을 때마다 제목과 기간을 쓴 이파리를 다는 동화나무 사례, 선물로서의 책의 가치를 소개한 장을 붙인 것도 그런 뜻이다. 책을 몇 권 읽었느냐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환경이 중요하다.

동화작가라도 활약하고 있는 kwak정란씨는 요즘 영상매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상이 갖는 직접성이나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하루 빨리 영상교육의 지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 이현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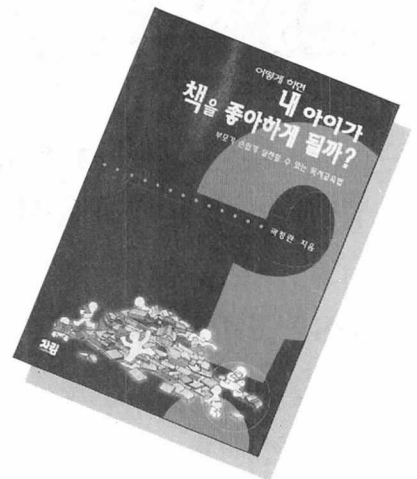
어린이 교육의 많은 부분은 독서지도에 할애된다. 그러나 독서지도의 방법을 모르는 부모들은 위인들의 전기물이나 세계명작을 전집으로 구입해 주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kwak정란씨(39, 어린이도서연구회 전문위원)가 펴낸 《어떻게 하면...》(차림)은 어린이 독서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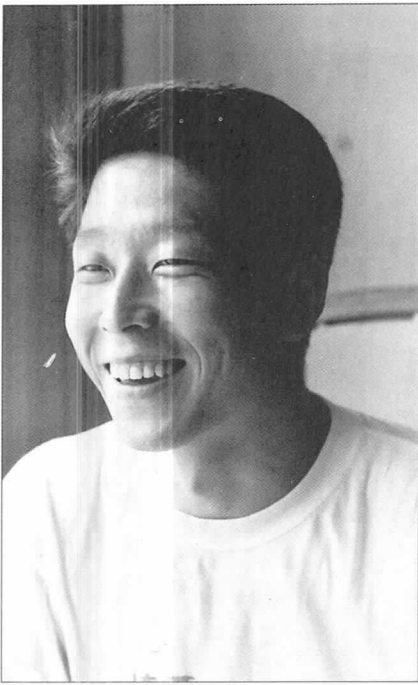
“제 아이 독서지도도를 하면서 체휨한 것을 다른 엄마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엄마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어린이들과 직접 호흡했던 것,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의 활동이 모두 녹아 있다. 거의 10년에 이르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경험은 특히 요긴한 밑거름이 되었다.

kwak정란씨는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가 잘못된 독서지도법에 있다고 지적한다. 독서를 강요하거나 어린이들의 관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도서 선택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 부모도 어린이 책을 함께 읽고, 고르는 것부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쏟아져 나오는 책들 가운데 좋은 책을 골라 주는 일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 부록으로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단계별 도서목록을 부록으로 담았는데 그간의 경험을 응축해 놓은 것이라 실제로 부모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kwak정란씨는 단순히 책 목록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책의 내용을 일부 실어 작가의 육성을 느끼게 했고, 책을 읽어 본 아이들의 반응을 함께 담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골라진 책만을 읽을 수는 없는 법.





## 한반도의 대동맥을 따라 산 사랑

《백두대간》 펴낸 길춘일씨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산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아무런 경계 없이 쉬어 친해질 수 있는 것도 모두 산이 그에게 되돌려 준 인간 본래의 모습이다.

“종주 후에 국토에 대한 숭고한 사랑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더군요. 이런 감정은 저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을 종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공통된 것일 겁니다.”

길춘일씨는 종주를 하면서 산의 알미를 껴안아본 느낌이라 한다. 풀, 나무, 꽃, 샘터, 들. 산이 지닌 자잘한 것 하나하나의 생김생김이나 색깔 같은 것이 모두 마음에 와서 박히더라는 것. 산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깊어지니 애정의 빛깔이 전과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종주하면서 국토가 훼손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다는 길춘일씨는 요즘 ‘우이령 보존회’에서 국토 보존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 앞으로 2년내에 12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정맥들을 종주할 계획이다. 남들이 보기에 이른 나이도 아닌데 결혼도 직장도 모두 그 뒤로 미루어 놓아도 그는 조바심나지 않는다. — 박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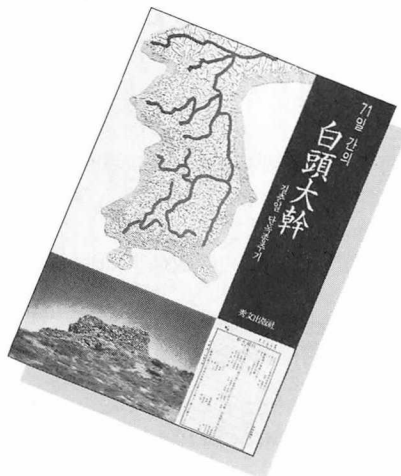
《71일간의 백두대간》(수문출판사)은 올해 서른살된 길춘일씨의 백두대간 종주기다. 종주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지를 묶고 부록으로 사용한 지도, 장비목록, 기타 준비과정 등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어떤 길을 갔고 물이나 식량은 어디쯤에서 구할 수 있으며 뱀이나 다른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속들이 기록한 이 책은 지도상에는 없는 백두대간의 속사정을 낱낱이 보여주는 내시경과 같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뻗어내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줄기로 사람몸으로 치면 대동맥에 해당한다. 산도 지나고 강도 건너는 일본식 ‘산맥’의 개념과는 달리 강줄기를 경계로 산등성에서 산등성으로 이어지는 산흐름을 따르고 있다. 이 흐름을 탄다면 우리나라 어느 산에서 출발하던 강을 건너지 않고 산을 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백두대간 종주는 산에 오르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루고 싶어하는 꿈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무더웠다는 94년 7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71일간에 걸쳐 백두대간 남쪽 부분을 종주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중간지원 한번 받지 않고 길동무도 없는 산길을 홀로 걸으면서 그는 스스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을 체험했다. 사뭇 생각이나 욕망은 모두 사라지고 본능적인 감각과 욕구만 남더라는 것. 목이 마르면 풀뿌리를 씹었고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뒤져 물품이나 먹거리를 보충할 때도 있었다. 무당이 굿을 하고 떠난 산신각에서



## 두 번의 뿌듯함

처음에는 교육, 나중에는 취업에 대해 만족해하는 수료생들을 보면서  
한 번,  
수료생들의 일습시에  
만족해하는 취업의뢰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이 두 번의 뿌듯함으로  
서울편집학원은  
전통을 이어갑니다.

능력있는 편집인·기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첫아이를 가진 엄마가 태교를 하듯 정성을 다하여 지도합니다.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면?

첫아이를 시집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 구분   | 정규과정   | 주말정규과정                           | DTP특강과정  |
|------|--|----------------------------------|--|
| 강의기간 | 5개월  | 5개월                              | 8주   |
| 강의시간 | 오전반10:00-13:00<br>오후반14:00-17:00<br>야간반19:00-22:00 | 토요일15:00-21:00<br>일요일10:00-16:00 | 오전반10:00-13:00<br>오후반14:00-17:00<br>야간반19:00-22:00 |
| 정원   | 30명  | 20명                              | 20명  |
| 강의요일 | 월·화·목·금  | 토·일                              | 월~금  |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매체협회 지정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 추천 교육기관

**서울편집원스쿨**

문의(대)672-1841~2 FAX 637-0441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방향 100m  
24시간 자동응답안내 704-4450(100★)